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회의록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0월 27일 (화) 09시 3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초광역자치과, 초광역산업문화과**

(09시 2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해당에 대하여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광역연합의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광역자치과와 초광역산업문화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충청광역연합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실시하는 2026행정사무감사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충청광역연합사무처장 이경성

초광역자치과장

산업문화과장

(사무처장 이경성, 김기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기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8월 31일자로 충청광역연합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이경성입니다.

(인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초광역자치과장입니다.

(인사)

원계령 초광역산업문화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충남 논산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첫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저도 긴장되고 우리 사무처장님, 과장님도 긴장되실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를 죽 살펴보다 보니까 홍보비 보시면 합계하고 세부금액 내용이 틀려요.

언론사 광고비는 한 200만 원이 틀리고요, 다중시설 광고비는 1,21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용산역 광고비가 자료에 따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요.

제출자료 52쪽을 보시면 2025년 언론광고비 합계는 1억 8,230만 원인데, 세부내역을 모두 더하면 1억 8,430만 원입니다.

또한 53쪽에 전광판 광고비는 합계가 9,32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항목별로 더하면 1억 532만 3,000원이에요. 특히 KTX 용산역 전광판 광고비는 53쪽에는 3,041만 5,000원이라고 적혀 있고 54쪽에는 1,831만 5,000원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언론홍보 및 콘텐츠 발굴 사업은 3억 5,600만 원의 예산 중 3억 4,604만 6,4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언론홍보비 합계와 세부내역이 200만 원 차이가 나고 전광판 광고비는 1,21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결산서에 기록된 실제 지출금액과 감사자료에 제출한 광고비 세부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언론광고와 전광판 홍보의 매체별 계약금액, 지급금액, 정산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해 달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제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이나 사무처장님 혹시 지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이경성** 먼저 수치가 다른 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을 하다보니 누계를 잘못 낸 것 같은데, 그건 저도 한번 두드려 봤어야 되는데 계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욱 위원** 많이 잘못하신 거예요. 처음 행정감사를 하는데 좀 더 꼼꼼하게 들여보셨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면 제가 유추해 보건대 52쪽에 보면 충청광역연합 기관홍보 중도일보에 200만 원 준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전광판에 대한 내용은 53쪽에 3,04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4쪽에 1,83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31만 5,000원 넣으면 이거 계산은 맞아요.

○**사무처장 이경성** 아마 결산서가 정확할 것이고요, 결산 내용 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도 정확한 세부내역이 없더라고요.

○**사무처장 이경성** 결산서는 저희가 전산으로 이호조로 다 나온 걸 가지고 결산검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결산 서류가 맞을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내역까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저한테만 보고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왜냐하면 이 금액이 틀리

다는 것 자체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의 미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경험상 이렇게 틀리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굉장히 질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정도로 자료, 계약서하고 지출결의서 근거를 정확하게 저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사무처장 이경성** 예.

○**김종욱 위원** 충청광역연합은 4개의 시·도가 함께 출범시킨 새로운 광역행정체계입니다. 출범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는 그 존재 이유를 시·도민의 삶 속에서 증명해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 번 회의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행사를 개최했는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청권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는지, 청년들의 취업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4개 시·도 관광과 산업이 실제로 연결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협력의 성과를 숫자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이 명실상부한 초광역행정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계획과 책임 있는 성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예.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고제열 위원** 대전 중구 고제열 위원입니다.

첫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사실 우리 광역연합이 3년차 들어오면서 광역연합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연합사무처 직원들이나 아니면 4개 단체장들 또는 저희 의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일을 만들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나간 사업에 대한 질타의 자리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광역연합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 갑천호수공원에서 충청권 생활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논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대전에서 했는데, 자료를 보니 예산은 2억 정도였고 지난해 참가인원은 1,2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전에서 했던 행사는 집계인원을 몇 명으로 했습니까?

○**사무처장 이경성** 약 2,000명 정도로 집계를 했습니다.

○**고제열 위원** 본 위원이 그 행사 참석해서 본 느낌은 그렇게 큰 행사에 모인 인원이 2,000명이면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4개 시·도 연합인데 주로 대전 동네 주민들 위주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4개 시·도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런 행사가 과연 지속이, 2억의 예산을 써서 지속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하여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충청미래경제포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청주 오스코에서 했었고 얼마 전에는 세종에서 했었는데, 4개 광역단체장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사실 포럼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모였던 청중들이 관계자 외에는 진짜 관심 있는 시민이나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난해에는 100여명이 참가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몇 명이 참여한 겁니까?

○**사무처장 이경성** 올해도 참여하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인원은 한 150여명 되었는데 중간중간에 본인 세션이 끝나면 자리 이동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제열 위원** 이번 행사에도 그 넓은 홀에 빈 자리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체장들이 인사말하는 행사에 멈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행사도 좀 더 효율성 있게 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이 광역연합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의원들이 5분 발언한 내용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검토를 하면 38페이지 지난해 김현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암 생존자 지원의 행정구역 통합을 요구했었습니다.

암 생존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 지역이 아닌 인근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충청권 통합모델을 구축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 5분 발언 이후에 암 생존자 통합지원센터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경성** 한 가지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면 저희가 규약사무가 21개 규약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5분 발언에서 제안해주신 암 생존자 통합지원센터 충청권 통합 모델은 저희가 보건의료 같은 경우 규약사무에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규약사무를 발굴할 때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규약사무로 넣고 규약사무의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규약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암 생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사람의 생명존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4개 시·도의 보건의료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제열 위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경성** 현재는 나름대로 우리 규약사무에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도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연합, 타국 다른 나라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안전과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생명존중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우선 협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제열 위원** 예, 우선 협력사항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전 옆에 옥천이 있습니다. 옥천은 충북이죠. 그런데 옥천군민 입장에서는 대전이 더 가깝거든요. 그러면 더 가까운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멀리 가는 것도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연합이니 이런 걸 4개 시·도가 서로 이용할 수 있게 통합모델을 구축하는 데 발빠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안녕하세요? 세종시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2025년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에 총 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더라고요. 그리고 50개의 공공기관과 약 2,000명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는 것보다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이후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은 몇 명 정도이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저희가 몇 명이 취업이 되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그동안에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도 채용 관련된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채용설명회를 합동으로 할 때는 실제적인 그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와서 상담을 하고 채용과 관련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그 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몇 명이 되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지요?

○**사무처장 이경성** 성과는 그 지역에 그 기관이라든지 우리 충청권 공공기관이 이런 게 있다는 것들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기관에 대한 이해와 그 기관의 인재상 등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담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 채용실적이 어떤 채용과 관련된 설명회 때문에 몇 명이 채용되었다 이것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지역인재 채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국토부 채용 실적을 보니까 '25년도에는 527명 정도 지역인재로 채용이 된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충청권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는 충청권 청년들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인재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명회가 실제 채용기회 확대로 이어지려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처장 이경성**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충청권 4개 시·도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이경성**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역인재 관련된 해당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실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지역인재로 예를 들어 10%를 채용하라고 했다, 그러면 전체 인원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10%면 1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채용하다 보면 그 전체 10%를 채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공고를 통해서 전체 인원을 공고를 하면 그만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과 지금 설명회를 별도로 기관 채용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충청권 4개 시·도와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충청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예.

○**김명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보겠습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내년으로 다가왔잖아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경기장이나 시설 준비 뿐만 아니라 충청권 4개 시·도의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사전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충청권 생활문화축제와 연계한 홍보를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문화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이어갈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대회 준비와 홍보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대회 개최 전까지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할 계획이신지?

특히 충청권 4개 시·도 함께하는 홍보계획과 시민들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지금까지 저희가 하는 모든 행사에 U대회와 관련된 홍보부스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지금 지역주민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홍보 분야에서는 홍보만 하기에도 그렇고 저희 기관에서 실질적인 업무도 수행을 해야 되는 사무처의 입장은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충청권 투어패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영문 버전으로 해서 지금 트립닷컴에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내외로 다 현재 저희가 충청권 투어패스 관련된 상품을 올려놓기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U대회 관련된 홍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충청권 4개 시·도에 공동홍보 및 협력방안 같은 것은 준비가 뭐 되어 있나요?

○**사무처장 이경성** 저희가 홍보해주는 부분도 있고 4개 시·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충청권 투어패스와 관련된 부분 한 가지, 또 하나는 선수촌이 세종에 있지 않습니까?

선수촌에서 내년에는 생활문화축전을 해서 우리 충청권에 하나된 문화적인 힘을 그쪽에서 세계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행사 기획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처장님 지금 말씀으로는 공동홍보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 뭔가가 약간 미흡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저희가 4개 시·도하고 공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모든 홍보에 U대회도 같이 홍보를 할 계획이고, 4개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차별화되기는 하지만 U대회를 같이 홍보하는 차원은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협력방안은 4개 시·도가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 이경성** 예.

○**김명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방안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세종시에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협력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처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사무처장 이경성** 저희가 지금 각 시·도하고의 홍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홍보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U대회 조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쪽 조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연합장님께서도 U대회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광역연합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U대회 때 선수촌에서 하는 행사 그걸 하게 되면 그 전 단계로 저희가 홍보를 4개 시·도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문화축전 자체가 4개 시·도 연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 관련해서는 4개 시·도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현재 준비가 많이 미흡한 부분처럼 느껴지거든요?

일을 언제까지 보완할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이경성** 저희가 내년 8월에 이루어지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업무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계획이 조금 되어 있는 걸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사무처장 이경성** 예.

○**김명숙 위원** 그리고 U대회가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내년 8월이면. 그러면 U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충청권 전체의 위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간이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U대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홍**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대전 서구4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저도 보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71쪽에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와 더불어 내년도에 충청권 생활문화축제를 함께 연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행감은 아니고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업무계획에서라도 보고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를 바라는 바이지만, U대회의 성공을 위해 지금 4개 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부처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예정되고 있는 숙소촌에서 우리가 생활문화축제를 같이 하게 되면 그게 효과가 좋으려면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소촌이라고 하면 좀 범위도 광범위할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떤 규모로, 컨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선수촌 내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U대회 조직위하고도 협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배분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선수촌과 관련된 그쪽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생활문화 쪽으로, 그동안에는 생활문화축전 하면 그동안에 동아리 활동들 오셔서 발표하시고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들과 관련된 내용을 전시하거나 이렇게 하셨는데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선수촌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그걸 주관하고 있는 U대회 조직위원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조직위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4개 시·도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계획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의견 또 주시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에 조금 더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선수촌이라고 하면 세종에 위치하게 될 선수촌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이경성** 예.

○**서다운 위원** 호텔 중심으로 지금 선수촌이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호텔에 어떤 규모로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실은 U대회는 12일간으로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 중에 생활문화축제를 당초에는 우리가 반나절 정도의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대응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실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사무처장 이경성** 저희가 모든 기간에 생활문화축제를 할 수는 없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겁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이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생활문화축제를 할 때도 사실은 10시에 개회를 해서 5시~6시 정도에 마치게 되는데 하루 정도 프로그램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하루 정도요?

예산은 그대로 증액 없이?

○**사무처장 이경성** 아닙니다. 예산은 조금 더 증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까 존경하는 고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금액 가지고 2,000명, 좀 부족한 면이 있었잖아요. 그날 저희가 다른 지역에 행사도 있었고 또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날 충남 지역 내에 생활문화축제를 했습니다, 보령에서.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하루 동안에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충청권을 찾는 관광객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있고 관계자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께 나름대로의 충청권의 단합된 모습을,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서다운 위원** 그런 컨셉이라면 작년과 올해 했던 생활문화축제랑은 완전 다른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대응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규모라든지 그림을 다시 편성하셔서 우리끼리 즐기는 축제로는 지금의 생활문화인들이 오셔서 각자의 장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하는 것도 충분할 수 있지만 U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도 청소년들부터 해가지고 또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언어 대응도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유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U대회랑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당초 U대회의 업무가 우리 연합업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4개 시·도의 단독 업무 플러스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업무

가 있었는데 이왕 우리가 함께하기로 하면 역할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4개 시·도의 연합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문화 차원에서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8월까지 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무처장 이경성**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7일에 하는 행사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성과를 어떻게, 성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회의를 4개 시·도하고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곧, 이번주 같습니다. 진행을 하고, 내년 행사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U대회 조직위에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필요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받아서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저희 규약 사무에는 체육은 없습니다. 체육은 없지만, 나름대로 이 행사와 관련된 문화 또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서다운 위원** 잘 챙겨주셔서 멋진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좀 드리면 56쪽, 57쪽이 예산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충청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분야에서 시민, 도민의 세금으로 진행을 하는데 수의계약에서 계약업체 소재지를 기재해 주신 것도 있고 전후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재지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소재지를 그냥 눈으로 봤을 때 4개 시·도에 충분히 많은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든지 경기 소재에 수의계약이 있고 추후에 나머지 용역이라든지 물품대금도 확인해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굳이 4개 시·도에서 함께하는 연합체인데 서울이나 경기에서 수의계약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대금 결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향후에 내년도 업무 수립하실 때는 최대한 우리 지역을 제한경쟁시킨다든지 적어도 수의계약만큼은 우리 지역 업체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주실 수 없으실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저도 이 서류를 보고 서울이 많다.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 충청권에서 징수된 세금이 타 지역으로 많이 갔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직원들하고도 한번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나름대로 확인을 해본 결과 전산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차세대 행정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행안부 주관으로 KLID라고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해서 전 243개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저희는 그 시스템을 쓸 수가 없어서 구 이호조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로 넘어가지 않은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전산 관련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서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지역경쟁을 조금 더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제가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우리 연합에 수의라든지 물품대금 같은 것을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제한경쟁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조달은 제한사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향후 연구용역이 될 수도 있고 사업영역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4개 시·도에 여러 자생하는 업체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그 부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16쪽, 17쪽으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전년도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행을 하시는데, 이 용역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사전 심의위원회가 있을 건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대체로 서면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위원 수가 5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5명 밖에 되지 않는데 5명 모두가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이라고 하면 대체로 내부공무원이실 것 같거든요.

○**사무처장 이경성**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내부공무원이시면 같이 모여서 회의하시는 게 훨씬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굳이 서면심의를 하시는 게, 비단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대체로 모두 서면심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합이 주는 변화는 기존에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고 4개 시·도가 서로 모여서 없었던 업무를 진행하거나 4개 시·도의 서로 다름을 합의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서면심의로 해서 4개 시·도가 변화를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사무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서면심의 밖에 없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처장 이경성** 그래서 저도 이것 독해를 하면서 서면심의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 주셔서 그 예로 답변을 드리면 조례규칙심의위원은 다 당연직 공무원이고 개선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다 보면 나름대로 다 보고가 되고 인지가 되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서면심의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에는 좀 더 저희가 모여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네, 그래서 그 결과들도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용역결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상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용역결과 창 같은 게 있을 법한데 우

리의 홈페이지는 조금 시·도민이 오셔서 보기에 어떤 업무를 하는 구나, 이런 연구 혹은 이런 업무에 대한 결과가 있구나를 느끼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른 단체랑 다르게 우리는 특수성이 있으니 홍보의 차원에서 좀 더 친절한 설명?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내주시고 카드뉴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변화를 추구하는 내년도 사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이경성** 저희가 지금 용역이 일부 완료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작년에 했던 용역과 올해 수행 중인 용역 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예, 특히 뭐 광역연합 신규사업 발굴 기획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의 변화 사무에도 직접적으로 고민이 필요하고 의원들도 공히 알아야 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공유를 해주시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충청모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이경성 사무처장님, 김주호 자치과장님, 원계령 산업문화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일일노고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9월 4일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도쿄 박람회가 있었지요.

여기에 관련된 주관은 어디에서 한 거지요?

과장님이 편하게, 다녀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원계령**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허 철 위원** 대전에서?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원계령** 예.

○**허 철 위원** 몇 개 기업이나 참여했습니까?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원계령** 각 시·도에서 11개 기업으로 총 44개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허 철 위원** 박람회 동안에 기업의 어떤 문제점은 아니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은 없었습니까?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원계령** 참가하신 기업들이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하고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고, 특히 일본에 KJC인가, 저희 한국기업인데 일본에 진출한 거기가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대표님께서 일본에 와서 겪은 애로사항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본인들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를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자리였다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허 철 위원**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어요?

리셉션 현장에서 한두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간 업체의 명패 상호가 잘못되고 이름이 잘못되고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원계령**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 철 위원** 그런 것부터가 챙기셔야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더군다나 해외 박람회에 충청권 지역의 많은 기업도 아니고 44개 업체가 박람회에 출두해서 그런 장에서 기업의 명칭이 잘못되고 이름이 잘못되고 했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원계령** 잘못된 것 분명히 맞고요,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 철 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은 기업이지만 거기에 참석한 기관들 일본업체들 등등에 사회자가 수고하면서 그런 명패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원계령**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철 위원** 주신 자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문화과장님, ’25년 전체 추진한 사업 중에서 목표 달성한 것, 또 미달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각각 수치로 표시해놓은 게 있으십니까?

’25년 지난해 사업 중에서.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원계령** (자료 확인)

○**허 철 위원** 사업을 하셨으면 사업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업 성과에 있어서 추진내용에 대해서 목표 달성, 목표 미달성.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원계령** 대부분 다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 철 위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원계령** 전체적으로 달성했다고, 작년 사업에 대해서.

○**허 철 위원** 몇 건?

전체 사업에 몇 건?

몇 건을 달성했고, 몇 건을 미달성했고.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원계령** (자료 확인)

○**허 철 위원** 아니, ’25년도 사업비 전체 예산에 사업이 몇 개고 그 사업 중에서 몇 개가 달성이 됐고 몇 개가 미달성됐고 이게 수치가 안 나옵니까?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원계령** 작년에는 용역 준 것도 있고 행사성으로 보면 생활문화축제, 지역인재합동설명회 그런 것은…

○**허 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수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체 사업비 100억이면 100억 중에 몇 가지 사업이 있고 그 사업 중에 달성한 성과가 몇 개고, 미달성이 몇 개고 이걸 답변하시라니까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직원분들 이 자료가 없어요?

아니 예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성과를 답변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25년 거를?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원계령**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년도 '25년 예산은 17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역인재채용박람회 등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지역인재채용박람회도 51개 기관 중 50개 기관이 참여했고요, 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전략산업은 바이오하고 미래모빌리티 분야 연구용역 준 부분 추진을 했습니다.

충청미래경제포럼과 해외박람회는 행사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추진을 했고…… 추진했습니다.

현재 총 집행액은 15억 정도 되고요, 명시이월 포함해서 한 87%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허 철 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할 때 '25년 전체 사업의 예산액은 나와 있어요.

"몇 가지 사업 중에 몇 가지가 달성되고 몇 가지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아니, 이런 것도 준비를 안 하시고 무슨 행정감사 준비를.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고 자꾸 이렇게 예산 이야기만 하시면.

본 위원이 어려운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첫 자리여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

본 위원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고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다음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허철 위원님의 질의에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넘겨주십시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충남 천안에 이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연합이 생기고 처음 치뤄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처음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각 지역에서 다 감사를 여러 번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을 꾸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목적만 이행하다 보니까 디테일함은 좀 찾지 못한 부분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것은 시·도민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정사무를 잘하고 있느냐, 보고하는 자료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집에 미스가 이렇게 많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은 이 자료집만 봐도 나온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못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거와 논외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6페이지 보면 초광역 행정체계 운영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7% 밖에 안 됩니다. 하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사무처장 이경성** 초광역 행정운영체계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 관련된 용역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규약사무 중에 해야 할 부분들이 용역 부분도 일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하반기에도 있었고 저희가 작성 제출한 건 8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약 두 달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진행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성된 예산만큼은 올해 안에 적정한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기에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각 시·도에서 분담금을 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연도 내에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사업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추진을 해가면서 이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이 비용만 맞추려고 사업을 계획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용액도 생기고 집행률도 안 나오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이경성** 행정여건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와 현재 지출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행정여건이 좀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향후에는 잘, 우리 광역연합이 설치된 목적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9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 관련해서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2건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네.

○**이병하 위원** 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확정된 예산에서 동일한 항목 내에서 금액을 상호 유통하여서 사용하는 건데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무처장 이경성** 저희가 세부사업 안에서 전용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결산 하면서를 그거를 드릴 거고, 이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출장 관련된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에서 민간인이 가시는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본 출장 가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인 여비를 줄이고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충청광역연합 C.I를 개발했는데, 당초에는 1억으로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제안을 통해서 공모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 용역비를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더라고요.

주민 참여도 이끌어내면서 예산도 절감하게 되었지만 예산은 저희가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 전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예산 목이 안 맞으면 추경을 통해서 변경을 한 뒤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3월, 7월, 12월에 추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사업은 5월에 이루어져서 부득이 7월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5월에 전용을 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19페이지 보면 위탁대행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다음부터는 예산액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22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위탁 당시 수익금 예산액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사무처장 이경성** 예측하기 좀 어렵, 이 정산사항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당일이용권 중에 내가 다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1만 5,000원짜리 상품을 투어패스를 샀는데 세 곳을 가야 하지만 두 곳밖에 못 갔다. 그렇게 되면 한 곳 못 간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렇다고 가맹점에 돌려주지 않고 저희한테 정산으로 들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4개 시·도로 공히 세출 편성을 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이병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음 했는데 처음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축을 충청권에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4개 시·도가 똘똘 뭉친 것 아니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어요. 시작은 되었으니까 우리가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뭉쳐서 진행되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에 있어서의 행정도 그거에 준해서 우리 연합에서도 신경을 잘 쓰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예, 저희가 특별법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특별법을 담을 때 저희의 특례사항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우리한테 더 주십시오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만이 충청권에 나름대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 관련된 용역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철 위원** 산업문화과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5년도 사업별 예산액, 결산액, 집행액, 연말 집행계획, 전략산업 연계 사업에 대한 발굴 선정 추진 현황, 국비확보 실적,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해외박람회 참가기업 수, 수출상담회 실제 계약액 및 사후관리 실적, 또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참여기관, 참여자 수, 실제 취업연계 실적, 충청권 생활문화축제·광역투어패스의 참여인원, 만족도, 성과평가자료, 마지막으로 사업별 위탁 용역계약 현황,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이것에 관련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내실 수 있으십니까?

원계령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늘 첫 행정감사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답변도 명확하게,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안 해 보신 것도 아니고 행정감사를 다 해보셨을 텐데.

이것 요구자료 어떻게, 이번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원계령**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고제열 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충청광역이 출발하다 보니까 여러 의욕적인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지역화폐발행 시행방안 수립 용역을 했었습니다.

예산 1억을 들였는데 9,100만 원이 실행되었고요. 수행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거죠. 단독으로 했고요. 용역은 8월에 끝이 났습니다.

과연 충청권 공동지역화폐가 가능할지 아닐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이렇게 연구용역이 끝났고 과연 4개 시·도의 기획실장이나 책임자들 실무 협의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이 공동지역화폐가 그냥 용역을 위한 연구일 뿐인지, 실행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사무처장 이경성** 4개 시·도에서 지역화폐 관련된 법률도 있기 때문에 그 법률과 관련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4개 시·도 관련부서 담당자와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된 계기는 U대회 때 오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페이백으로 해보려고 했었더라고요.

했었는데, 그렇게 하자면 이 사무가 저희 규약사무가 첫 번째 아니고, 그런 말씀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역화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향후에는 각 지역별로 할인율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시책들이 조금 달라서, 용역결과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되 중장기적으로 합쳐야 한다. 이런 용역 결과가 도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는 경제동맹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할인율 또 각, 이 지역화폐는 시·군에서도, 구에서도 예산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통된 안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역을 통합해서 지역화폐도 아주 못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또 협의는 해보겠지만 좀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제열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U대회에서는 사용이 규약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불투명하고요.

○**사무처장 이경성** 네.

○**고제열 위원** 그래서 의욕적으로 했지만 과연 이게 검토단계부터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전·충남·세종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저희 의회에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사무처도 방문했고 그 후에는 박수현 연합장도 만났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경성** 예.

○**고제열 위원** 여성벤처인들이 연합을 해서 광역의회에 구체적인 사업을 요구한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들의 목적은 충청권에 여성벤처 1,000개를 만들겠다. 1,000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광역에서 많이 행정적·재정적으로 도와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물론 당장 그

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요구가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시죠?

○**사무처장 이경성** 예, 타당성은 있습니다.

○**고제열 위원**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충청권 경제 부흥을 위해서 여성벤처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신생 벤처가 더 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현합장님 접견하실 때 저도 배석을 했었는데 여성인력이 앞으로 많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는 공감을 했고요.

또 여성들이 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는 시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여성·남성 굳이 구분해야 하느냐라는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여성을 꼭 그렇게 해줘야 되냐? 남성 입장에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성인력이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서로가 사회·경제적으로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 주기적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에서 인큐베이팅하고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전 주기를 다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4개 시·도에서 여성벤처 관련된 또 나름대로의 벤처기업 지원하는 육성기관들도 있고 각 시·도의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코디네이션을 먼저 하고 나름대로 저희 사업들이 혹시 광역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우선 연합장님께 제안하신 부분은 여성 벤처기업인으로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과 관련된 간담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연내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알아야 그 부분을 정책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부터 우선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제열 위원** 하여튼 여성 벤처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수익금액이 있는데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앞선 질문에서 답은 찾았고요, 다만 이게 작년도에는 위탁금액이 1억 5,000인 것 같고, 올해부터는 3억으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증액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성과평가는 아직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 운영실적 같은 건 나와 있을 것 같아서요.

당초 계획 대비 운영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3억이라는 투자 대비 우리 시·도민

혹은 현장에 계신 가맹점주분들은 어떤 정도의 혜택 혹은 관광인프라의 개발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하는 부분들은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한 8,000매 정도.

저희가 투어패스를 아홉 가지의 투어패스를 했습니다. 빅2, 빅3 이것은 1년에…… 아,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10월 26일 기준으로 최종 판매 수는 5,934매이고요. 가맹점은 67개소입니다.

가맹점은 여러 가지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10%를 할인하고 또 할인된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들이 다양할수록 투어패스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맹점을 늘려보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도 위탁업체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입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 부분이 다 판매가 완료되면 정산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는 하셨지만 다 사용하지 못하신 금액들은 정산해서 저희한테 수익금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우리가 3억 원의 세금을 투여함에 있어서 할인지원금은 직접적으로 가맹업주에게 가는 지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올해 예산 대비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에 할인업주가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관광을 하지 않아서 예상 대비 가맹점에 지원하는 예산이 남으면 그 예산은 우리한테 돌아옵니까, 아니면 운영 체계가 가져갑니까?

○**사무처장 이경성** 돌아옵니다.

○**서다운 위원** 돌아옵니까?

그것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이경성** 돌아오는 체계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돌아오는 체계입니까?

○**사무처장 이경성** 저희가 가맹점이 예를 들어 나는 10%를 할인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팔면, 그게 5,000원이다 그러면 “10%는 내가 할인해서 팔게요.” 그게 저희 상품 안에 아메리카노가 예를 들어 5,000원이지만 본인이 10%를 할인하고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2,500원만 부담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그러면 운영수수료 및 대행수수료만 지금 엘에스컴퍼니라고 하는 그 기관에 가게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이경성** 운영하는 수수료는 그 회사에 주게 되는 거죠.

○**서다운 위원** 운영 및 홍보비가 6,500만 원, 그리고 대행수수료가 1,500만 원인데 이것만 엘에스컴퍼니가 수익하게 되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가맹업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무처장 이경성** 예.

○**서다운 위원** 지금 홈페이지 가보니까 이 엘에스컴퍼니가 다양한 지자체의 투어패스 운영하고 있어서 그 중에 우리 충청권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60개의 가맹점이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적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성과평가 외로 우리 부서에서 따로 체크하거나 확인하고 있는 바는 없나요?

○**사무처장 이경성** 저희가 위탁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서 상황점검, 업무 추진 상황은 점검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저희한테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저도 한번 이 부분을 사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나름 가맹업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할인률을 적용하고도 가맹점으로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가맹점을 조금 더 발굴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한 대전의 가맹업주는 혜택이 입장료 무료인데요, 이 입장료가 우리 할인권의 금액보다 비싸요.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적자 나는 구조를 이 가맹점에서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무처장 이경성** 아마 무료로 들어가셨으면 거기는 체험장일 겁니다.

○**서다운 위원** 그러니까 체험장이 비싸요. 입장권 자체가.

'넥'으로 시작하는 기관이 입장료가 무료인데 여기가 입장료가 2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패스가 1일권 하면 1만 5,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을 아는 사람이라면 입장료를 끊지 않고 패스권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무처장 이경성** 입장료를 아마 2만 2,000원이라는 그 금액을 내고 가면 체험할 때 무료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입장료가 무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험하면서 체험비는 아마 그 이용하시는 분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서다운 위원** 아니요. 패스권은 따로 있어요. 5만 원짜리에요.

그래서 여기가 특이한 상황인데.

○**사무처장 이경성** 가맹점 피해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연 1회 정기감사를 하는데 정산 보전을 저희가 해준답니다. 이용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산 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서다운 위원** 정산 보전?

○**사무처장 이경성** 정산 보전.

그러니까 가맹점에 정산해서 이용한 부분들이 전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QR을 생성해서 주기 때문에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정산해서 보전해 줍니다. 차액을.

○**서다운 위원** 차액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니까, 우리가 당초 가맹업주분들에게 혜

택을 주는 건 좋으나 여기 특정 기업은 굉장한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 기존 자신들이 판매하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그 보전을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여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인데, 시민들이야 당연히 좋겠지만요. 그래서 이 구조는 추후에 제가 기관명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사실인지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저희가 최고로 보전해줄 수 있는 금액이 2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서다운 위원** 패스권이 1만 5,000원인데 2만 원까지 보전이 되면 약간 손해보는 구조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시민에게 혜택가는 건 당연히 좋지만 가맹업주만 혜택받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 중에 그 2만 원짜리는 분명히 대기업일 거란 말이에요.

○**사무처장 이경성**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챙겨주세요. 제가 확인한 이 기관은 누가 봐도 대기업이거든요. 이거는 추후에 업체명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제열 위원님이 지역화폐발행 시행 용역에 대해서 했는데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업무 측면에서 검토만 판단을 했었어도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었을까요?

○**사무처장 이경성**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를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것은 그냥 예산낭비의 사례로 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네.

○**위원장 김기흥** 23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19번의 건의활동을 했다는 활동내역은 있지만 어느 건의가 어떤 권한과 재원 확보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자료는 없어 보입니다.

건의 19건 중 공식 회견과 반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나요?

23쪽에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다 '건의'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의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식 반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사무처장 이경성** 그동안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저희가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철도하고 도로하고.

철도는 10년짜리 계획이고 도로는 고속도로인데 그건 5년짜리 계획이 올해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7일 연합 협의회에서도 국토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철도 3개, 고속도로 3개 이 부분은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법 처리 촉구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연말에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건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와 나름대로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를 담으려면 저희가 이렇게 건의하고 한 내용들의 후속적인 조치들을 잘 취합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행감 자료가 좀 부실한 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사무처와의 관계는 좀 유연하게 갖더라도 업무적으로는 조금 더 끈끈하고 조금 더 긴장감 있게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이지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실 때는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경성** 네.

○**위원장 김기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은 향후 광역연합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고, 2026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광역자치과와 초광역산업문화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고제열 김기흥 김명숙 김종욱 서다운 이병하 허 철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일호

○ **피감사기관 참석자**

<충청광역연합사무처>

사 무 처 장 이경성

초광역자치과장 김주호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원계령